

# 강진-해남 손잡고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준비

##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위한 실무회의 2개 시·군 연계해 체류형 패키지 관광 자원화 논의

강진군과 해남군은 지난달 30일 고산운 선도유적지 회의실에서 국토부 주관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 노력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이다. 올해 3월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방침에 2개 시·군이 연계해 체류형 패키지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 할 경우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 있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10일 밤 빠르게 해남군과 협업해 시·군 연계 공모사업 신청 논의를 추진했다. 강진군과 해남군은 다산 정약용과 고산 윤선도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산 정약용과 고산 윤선도는 강진과 해남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다산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 윤씨이며 고산 윤선도의 후대손이라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연, 역사, 예술, 문화, 차, 인물, 먹거리, 길이라는 핵심 키워드 8가지를 도출해 강진군과 해남군의 관광자원을 서로 공유·연계할 경우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모사업에 확정되면 시·군별 20억 원씩 책비 100% 지원되며 강진군은 다산유적지 기반시설을, 해남군은 다산윤선도

유적지 일원 정원 조성을 추진해 광역단위 관광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진군 임재용 기획홍보실장과 해남군 김중화 기획실장은 지자체간 협업해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교류 협력으로 동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은 올해 4월 전라남도 1차 심사를 거쳐 5월 국토교통부 서면평가, 6월 중량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강진=김대수 기자 abc6789@

## 신안, 생태계 보전·철새 서식지 조성사업 확대 추진 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앞장,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기착지인 흑산면 일대 도서 지역의 철새 보전과 주민들과의 상생, 마을 활성화,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철새먹이 경작재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한편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철새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신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마을의 휴경지에 조(서숙)와 수수를 재배해 수확물의 50%를 가을철 흑산 권역을 통과하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가을철에 50%를 수확

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 철새 이동시기에 부족한 먹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철새먹이 경작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와 비대상지 모니터링 결과 대상지에서 두 배 많은 철새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휴경지 밭에 철새 먹이를 재배해 마을에 활기가 띠고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은 물론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흑산도 본도 인근의 섬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문의가 많았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 목포,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확산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설들이 대폭 증가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집중 관리대상 시설 중 상당수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부득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종사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세정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지역 집중 관리대상 시설은 1천 748개소로, 종교시설 445개소, 실내체육시설 220개소, 유흥업소 154개소, 노래방 200개소, PC방 141개소, 학원 588개소이다.

시는 현재 전체 직원을 투입해 관리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기 위해 문을 닫은 시설은 종교시설 260개소, 실내체육시설 72개소, 유흥업소 148개소, 노래방 147개소, PC방 68개소, 학원 415개소 등이다.

지난 주말 교회 23개소는 온라인 및 영상예배로 대체하고, 일부 교회는 주 3회였던 예배를 일요일 1번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시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정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번 주가 코로나 초기 종식에 가장 결정적 시기 만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더욱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2명, 28일 해외 입국 1명 등 확진자 발생에 따른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접촉자 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영암축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5개 축산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품(라면, 마스크, 돼지·오리고기, 현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취약계층 방문봉사자 등 영암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됐다. /영암군 제공

## '코로나19 함께 극복' 영암 축산단체 앞장서

### 5개 축산 기관·단체 2천500만원 상당 성금품 기부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암군 축산 기관·단체가 2천5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부해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축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5개 축산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품(라면, 마스크, 돼지·오리고기, 현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취약계층 방문봉사자 등 영암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됐다.

영암군 축산단체는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하고자 최근 6년 동안 군민장학회에 22회, 총 8천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했고, 매년 2회 이상 소외계층 한우·한돈 나눔행사, 학교 급식지원 행사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는 축산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축산농가의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이번 성금품을 전달할 배경에는 최근 2년동안 주민들의 협

조와 도움속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앞으로도 축산업의 현대화와 지역 사회 환원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나누었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보태준 것에 고마운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차단방역에 적극 힘써 청정영암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 무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 신청 안내

전남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061-450-5372)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고민재 기자 mjgo@

## 함평군-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 노후 상수관로 정비·블록시스템 구축 등 중점 추진

함평군(군수 권대행 나윤수)이 군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물 전문기관인 환경부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72억8천만원을 투입, 노후 상수관로 정비, 블록시스템 구

축,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사업 착수부터 5년간 사업구역 내 우수율(생산된 총수량 중 고객이 요금 부담하는 수량의 비율)을 85%까지 끌어 올려 누수량 저감에 따른 수도물 생산비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시설 채투자 등이 선순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용)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직통)  
팩스: 062)227-0084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전남도민일보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직통)